

# 파리한글학교에서 펼치는 책놀이



글 | 최지혜  
파리한글학교 교사  
aiaime@hanmail.net

도서관과 아주 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용자일까요. 무엇보다도 늘 함께 있는 책이 더 친한 친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을 찾는 이용자가 없다면 책도 도서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이러한 관계가 외국에 있는 한글학교에서는 어떻게 다가 갈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서<sup>1)</sup>로 어린이도서관에서 이용자와 책과 만나다가, 이제는 이곳 파리 한글학교<sup>2)</sup>에서 책과 아이들과의 만남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한나절만 머물면서 한글을 배우는 곳이지요. 이곳의 아이들은 프랑스학교에서는 프랑스어도 잘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요. 불만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이들에게 한글로 된 책

1) 전 부평기적의도서관 관장

2) 파리한글학교는 1974년 5월 6일 개교했으며, 2010년 10월 현재 180명, 14학급으로 구성(유치부 3개반, 초등부 5개반, 중학부 2개반, 한국어학당(국제부) 3개반, 바칼로레아반 1개반) 되어 있습니다. 파리한글학교는 현재, 다문화 아이들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혼혈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비닐봉지물」 책 읽어주기



▲ 동물 흉내내기

은 친구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파리한글학교에는 13.2㎡(4평)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95% 한글로 된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한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에 대한 친밀감과 한글로 된 책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아서이지요. 물론 자료의 빈약함도 한 몫을 함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함과 재미-흥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애정을 듬뿍 담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 아주 따뜻하고 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해 하던 아이들이 만남의 횟수가 늘면서, 먼저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재미’를 심어줄 방법은 한글을 어렵게 만나는 것 보다는 즐거움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놀이’를 접목했습니다. 학과과정에 맞는 그림책 선정부터 진행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책놀이를 접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을 통한 즐거운 책놀이였습니다. 책이 즐겁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신나게 책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파리한글학교에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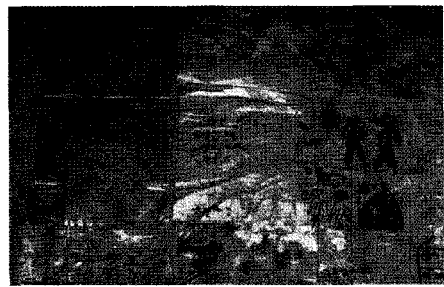
저는 먼저 아이들과 슬슬 이야기 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동안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 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을 합니다. 주변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보자는 의도이지요. “엄마, 아빠, 동생, 친구, 강아지 레이라……”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생은 나에게 어떤 일로 즐

거음을 주었을까?” 질문이 주어지고 이 대답으로 아이들은, 한 주 동안 아이들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간단한 출석체크를 넘어 생각의 힘과 관계의 힘을 자라게 합니다.

이번 주에는 『비닐봉지 풀』<sup>2)</sup>이라는 그림책을 읽어 줍니다. 제가 읽어주고 아이들은 듣습니다. 실제로 화면보다는 입말로 책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더 다정하게 아이들 감성을 어루만져주지요. 책을 읽어주기 전에, 옛날 호롱불 밑에서 할머니에게 이야기 듣는 기분을 재역하기 위해 교실바닥에 옹기종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 보따리를 펼치듯이 그림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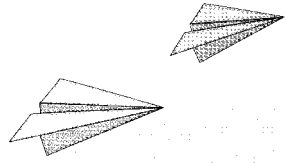
한글학교 아이들은 한국말은 곧잘 하지만 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때 책 속의 그림은 글자와 또 다른 상상속의 이해를 보다 넓고 깊게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그들의 언어수준과 관계없이 신비로울 정도로 얼굴의 표정들이 맑고 밝아집니다. 그림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책을 다 읽어주고 우리는 책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5가지를 그리고 적어보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참 다양하고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엄마, 가족, 꽃, 나무, 하늘, 말, 게임, 김밥, 코끼리, 호랑이, 삼겹살, 누나, 동생, 닌텐도, 풀, 아빠, 허수아




▲ 비닐봉지 그림

2) 『비닐봉지 풀』 그림책. 방미진 글. 오승민 그림. 느림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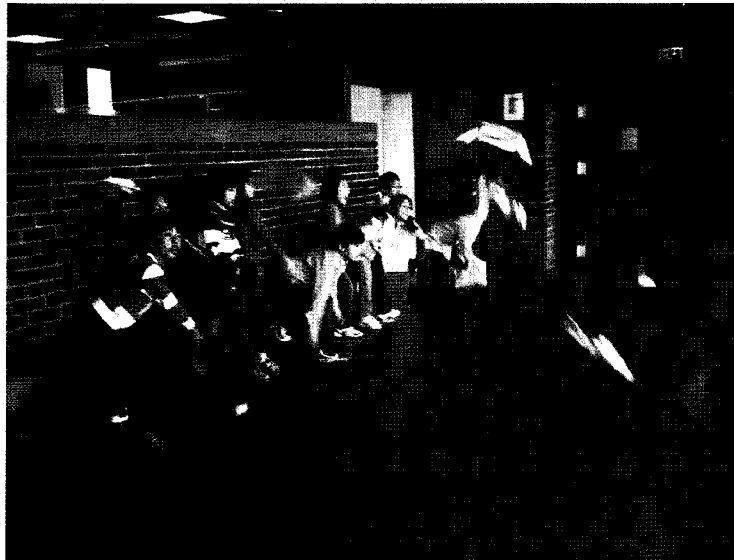


비, 에펠탑…… 각자 좋아하는 것을 비닐봉지에 그리고 글로 표현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에 ‘책’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저는 ‘닌텐도와 책’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비닐봉지에 적고 그린 후 우리는 모두 비닐봉지가 되어보았습니다. 종이비행기를 접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은 비닐봉지를 종이비행기에 달고 멀리 멀리 날려보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도 나도 멀리 높이 날려보려고 힘껏, 그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놀이를 한 아이들은 그 후 한 명, 두 명, 도서관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책 빌려주세요!”



▲ 종이비행기 날리기